

## 2nd Life(春來必似春)



김진형 전무  
(주)카길에그리퓨리나

해마다 우리는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한다.

지난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축산업계 전체를 뒤흔들었던 참으로 심난한 역경을 딛고 하루 속히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의 새 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다.

먼저 이 글에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그 동안 돌아간 수많은 가축들의 영혼에게 먼저 고개 숙여 삼가 명복을 빈다. 필자가 양계업계에 몸담고 있으니 특히 계공(鷄公)들에게 더욱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봄은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금년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는지 FMD, AI, 일본 동부해안의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 등 그렇게도 사건사고도 많았다. 유난히 길고 매섭게 춤던 날들을 밀어내고 따스한 봄별을 내려주는 것이 봄이 오긴 온 듯한데...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어느 봄보다도 크게 와 닿는데, 씩씩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벌써 춘분이 다가오는 날에 이 글을 쓰고 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유래를 찾아 요약해 보았다. 한문 공부도 오랜만에 하면서...

한서(漢書)에 전하는 시조로 전한(前漢)의 원조(元祖)때다. 왕소군(王昭君)에게는 봄은 봄이 아니었다. 기원전 33년 정략적으로 흉노의 왕에게 시집 간 궁녀 왕소군의 기막힌 사연이 담긴 이야기이다. 이때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기 3년 전쯤이기도 하다.

결핍하면 쳐 내려오는 흉노족을 달래기 위해 한(漢)나라





원제(元帝)는 궁녀들의 초상화집을 가져오게 해서 쪽 훑었다. 그 중 가장 못나게 그려진 왕소군을 찍었다. 원제는 궁중화가 모연수(毛延壽)에게 명하여 궁녀들의 초상화를 그려놓게 했는데, 궁녀들은 황제의 사랑을 받기 위해 다투어 모연수에게 뇌물을 바치며 제 얼굴을 예쁘게 그려 달라고 졸라댔다.

하지만 왕소군은 모연수를 찾지 않았다. 자신의 미모에 자신만만했기 때문이다. 꽤 씩하게 여긴 모연수는 왕소군을 가장 못나게 그려 바치고 말았다.

그러나 오랑캐 땅으로 떠나는 왕소군의 실물을 본 원제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다.

이후 '소군원'이란 시조에서 동방규는 흉노 땅에 도착한 후 황량한 풍토에서 맞는 상심과 망향의 슬픔으로 나날이 수척해 가는 왕소군의 가련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昭君怨(소군원)〉 - 동방규

胡地無花草(호지무화초)

오랑캐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自然衣帶緩(자연의대완)

자연히 옷 띠가 느슨해지니

非是爲腰身(비시위요신)

이는 허리 몸매 위함이 아니었도다.

황제의 간택만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교만하여 본인도, 황제도 실제와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만 한 궁녀의 슬픈 이야기가 이 봄에 더욱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잃어버린 우리의 지난 겨울에 이어서 다가올 새로운 봄이 더욱 절실한 때문인가?

두 번째 봄은 분명히 올 것이다.

우리의 2ND Life(인생 후반기)를 맞는 제2의 봄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여 그 여정을 시작해야 할까 고민에 빠지게 된다. 상심과 망향의 슬픔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것인가? 핵심역량인 미인계(?)라도 활용하여 오랑캐 왕을 의로운 군주로 변화시키는 일에 인생 후반기를 계획할 것인가? 어떤 봄을 구상할 것인가?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과거의 실패를 잊고, 과거의 성공도 잊고, 과거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출발로 미래를 도전해야 할 것이다.

1st Life(인생 전반기)에 성취하고 만들어 놓은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어떤 역량으로, 어떤 곳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그 비용의 균형은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되었지 않은가?

누구에게나 크던 작던 나눌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본전 생각하지 말고 그 동안 지금까지 받은 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닌 것을 안다면



두 번째 봄은 분명히 올 것이다.

우리의 2ND Life(인생 후반기)를 맞는 제2의 봄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여 그 여정을 시작해야 할까?



나누어 보자. 정신과 물질 모두를 나누다 보면 그 합은 더욱 커진다는 진리를... 봉사, 섬김, 나눔... 이것이 2nd Life를 기획하는 근간이 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수많은 분들이 그리 하셨듯이.

한 예로 축산 인재양성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한 눈 팔지 않고 40년 동안 축산 외길을 걸어오며 카길 한국 대표이자 카길북아시아 지구 총괄, 카길 본사 동물영양사업부 수석부사장으로 1st Life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김기용 회장님은 작년에 정년 퇴임하신 후에도 후학을 기르기 위한 강의를 계속하시고,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함께 하시고 계시며, 이를 위해 재단법인 GVN (Global Vision Network)을 설립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나누고 환원하시는 2nd Life의 바람직한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축산 업계의 한 모델이시기에 간략히 소개 드렸다.

한 존경하는 분이 필자에게 해 주신 말씀이 생생하다.

“당신이 받은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공짜로 나누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어떤 봄을 만들어 가야 하나?

이제 더 진한 봉사와 섬김의 향기로 가득찬 정신적, 물질적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어두운 영혼(靈魂)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不遇)을 위하여, 의(義)를 위하여, 돌리는 2nd Life를 계획하고 바라보려 한다. 아직은 1st Life의 시간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있는 필자로서는 시간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진정한 의미를 찾을 때 진정한 봄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春來必似春(춘래필사춘)

봄이 왔는데 정말 봄이구나. 